

# 독서능력인증시험

독서논술 침삭지도 예시(초등)

# 독서논술 탐색지도 예시

초등학교



대상도서

“너도 하늘말나리야”

독서논술 작성 : 성남 ○○초등학교 이○○



## 학생이 작성한 글

[1문단] 요즘 들어 (우리들에게는) '죽지 않아'라는 말이 유행이다. 사소한 것들을 무시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친구들의 걱정거리나 엄마의 염려에 '죽지 않아'라고 대답하는 건) 그 일이 죽을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것과 그쯤은 가볍게 웃어 넘기자는 의도이기도 하다.

[2문단]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가장 크게는) 죽을만큼의 고통과 그 앞에서는 작아져 버릴 것까지 아픔들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처한 환경 속에서 각각 닦친 아픔과 싸우면서도 그보다 더 큰 아픔을 지닌 사람을 만나면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게 되고, 그 아픔을 들여다 보며 서로 나누고 극복하게 된다.

[3문단] '너도 하늘 말나리아'에서처럼 분명 아픔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그 '성장'은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자기 안을 들여다 보고, 감당하며, 다른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이해할 때만 찾아온다. 누구나 아픔을 겪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 열린 마음만이 우리의 삶을 깊이 있고 당당하게 한다.

[4문단] (이 책은 주인공들의 행동을 비판하는 논제보다는 각자 차이는 있지만) 스스로, 또 서로 감싸며 아픔을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배우게 한다. 아주 어린 날부터 자기에게 주어진 아픔을 원망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묵묵히 자기 안으로 받아들이며 주변의 따뜻한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도 감쌀 줄 아는 곳곳한 소희, 만약 소희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거부하여 부모를 원망하고, 할머니에게도 투정만 부리는 생활을 했다면 어땠을까? 소희의 삶은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고 할머니까지 괴롭혀서 파괴적이 되었을 것이다. 마음 속에 진주를 키우기로 했다는 소희의 다짐처럼 아픔은 자기 안에서 견디고 마음은 세상과 다른 사람들을 향해 열려 있을 때 우리 삶에 진주를 선물해 주는 것 같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느티나무 그늘에 남아있지 않고 작은 집을 택한 소희가 너무 어른스럽고 당당하다.



## 학생이 작성한 글

[5문단] 자기 아픔에 갇혀서 '선택적 함구증'을 앓지만 다른 사람의 아픔을 통해서서 자기 아픔에서 빠져 나오는 바우,자기에게 주어진 아픔을 극복하지 못하면 바우의 '선택적 함구증'처럼 아픔은 또다른 아픔을 우리에게 안겨주나 보다.바우 보다 더한 아픔이 있지만 바우에게 누나가 되어준 소희가 아니었다면 바우는 더 오래 말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6문단] 부모의 이혼으로 아빠와도 떨어져 시골에 살게 되자 자기만이 큰 아픔을 겪는 것처럼 엄마를 탓하고 모두에게 화를 내는 것으로 아픔을 드러내기도 하고 감추기도 하는 미르,아마 미르의 행동은 보통의 우리가 뜻하지 않은 아픔을 만나게 됐을 때 하게 되는 행동일 것이다.나만해도 내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화부터 내고 원망이 된다.하지만 아빠의 재혼이라는 더 큰 아픔이 겹치자 비로소 미르는 자기 아픔을 터트리며 다른 사람의 아픔도 받아들이게 되고 소희,바우와 함께 성장한다. 이들 셋이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각자 아픔은 다르지만,아픔을 이겨내는 방법은 '마음을 여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한다.

[7문단] 미르,소희,바우는 모두 하늘 말나리처럼 당당하다. 미르의 엄마와 바우 아빠,소희 할머니(돌아가셨지만) 또한 아픔을 극복하며,열심히 살고 있으니 진정한 하늘 말나리들이다.



## 교사 지도

### ◆ 대상 도서에 대한 분석력

이 글을 읽으면 정말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초등학생답지 않게 '아픔을 이겨내는 성숙'에 대해 잘 표현하였습니다. 대상 도서를 읽고 느낀 점을 표현하는 수준을 넘었습니다. 읽는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맞아!'하는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대상 도서의 내용을 세 친구의 처지와 반응에 맞춰 잘 제시하였습니다. 소희와 바우와 미르가 아픔을 당당하게 이겨내는 모습을 일관성 있게 썼습니다. 좋은 관점으로 분석했습니다.

### ◆ 창의적 사고력

아는 미르와 소희, 바우의 상황을 요약했지만 보통 독서감상문에서 쓰는 것처럼 지루하거나 식상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세 친구의 아픔과 극복을 요약한 내용이 자신의 주장에 맞게 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두 아픔이 있지만 아픔을 극복하게 당당하게 살아내는 모습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논제 자체는 '아픔을 당당하게 이겨내자' 정도로 당연한 귀결로 볼 수 있지만 내용 전개와 표현이 새롭습니다. 뛰어난 독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교사 지도

### ◆ 문제 해결력

질그릇에 보배를 담을 수도 있고 금은 그릇에 여물을 담을 수도 있습니다. 이지윤 친구는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습니다. 대상도서를 잘 이해하고 뛰어난 독서력으로 글을 잘 썼지만 글을 담는 형식이 부족합니다. 서론-본론-결론도 잘 갖추었고 제시하는 내용도 독서논술에 어울립니다. 그러나 논술형식으로 볼 때 산만합니다.

[1문단] [2문단] 은 서론으로 아주 좋습니다. '죽지 않아!'라는 유행어를 아픔과 연결지어 제시한 점이 정말 탁월합니다. [3-6문단] 은 본론의 내용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 사람이 겪은 아픔과 이겨낸 과정을 똑같은 형식으로 나열해서 산만해졌습니다. 제시한 내용을 정말 훌륭하지만 제시방법을 다양화해야겠습니다. 3문단 내용을 '아픔은 우리를 성장하게 한다. 아픔은 열린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 아픔은 아파하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한다'는 논거로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을 세 문단으로 구성하고 미르, 소희, 바우가 겪은 일에서 공통점을 뽑아 써도 되고 다른 내용을 덧붙여도 됩니다. 특히 논제를 제시하는 이 책은 주인공들의 행동을 비판하는 논제보다는 각자 차이는 있지만 스스로, 또 서로 감싸며 아픔을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배우게 한다. 이 부분이 어색합니다. 서로 감싸며 아픔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이 전하려는 내용이므로 앞부분은 빼야 합니다. 정확하게 논제와 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교사 지도

### ◆ 문장력 및 표현력

표현력이 참 좋습니다. 아픔을 깊이 있게 돌아보고 글로 옮겨 마음을 움직이는 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장력이 조금 부족합니다. 1, 2, 3, 5문단은 모두 두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두 문장 중 한 문장이 지나치게 길입니다. 예를 들어, 3문단 첫 문장의 경우 너무 길어서 앞뒤 문장 호응이 맞지 않습니다. 앞부분-아픔이 우리를 성장하게 한다. 뒷부분-성장은 ~때 찾아온다. 두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가 서로 다르므로 연결하면 어색합니다. 논술의 생명은 설득력입니다. 문장이 길어지면 자칫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짧게 끊어 쓰세요. 또한, 생략해도 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 ) 표시한 곳은 안 써도 됩니다. 띄어쓰기 틀린 곳은 밑줄로 표시했습니다. 고쳐보세요.

### ◆ 총평

아픔은 성숙을 가져온다는 생각에는 깊은 성찰이 담겨있습니다. 책을 깊이 읽었거나 아픔을 겪고 이겨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문단구성 능력을 질그릇으로 표현했지만 더 발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세요. 마음에 남는 좋은 생각을 보여줘서 기쁩니다.